

북한 연구방법론 :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姜 正 仁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I. 안병영의 「북한연구의 방법론」 |
| III. '내재적 접근법'의 대두 | IV. 내재적 접근론자들에 대한 비판 |
| V. 맺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이 사용하는 방법론, 개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자의식(critical self-consciousness)을 필요로 한다.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세계를 관찰, 인식하고자 하는 주체는 자신이 과연 어떠한 입장과 상태에서 관찰과 인식에 임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기점검(self-examination)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문연구에 사용되는 방법, 이론, 개념 및 이론들은 외부세계를 단순히 중립적으로, 투명하고 왜곡없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주체의 주관적인 입장과 상태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속성이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이해에 영향

* 이 연구는 1992년도 교육부 지역연구지원금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을 미치기 때문이다.¹⁾ 이 점에서 학문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론, 개념 및 이론들은 현실을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전체로 재구성하여 지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계를 부여한다. 이는 철학적인식론적 문제로서 사회과학이건 자연과학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학문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론상의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남한에서의 북한연구는 정치·적·역사적 상황이 빚어낸 북한학 특유의 문제에 직면한다. 제2차 세계 대전후 냉전의 형태로 정립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는 해방후 남북한의 분단을 초래하였고,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해 남북한 인민의 의식에 전후 40년동안 철저히 내면화되었다. 이는 남북한에서 각각의 집권세력이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중에게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을 철저히 하고 집요하게 주입, 고취시킨 데서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역대정권은 분단이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공산주의 일반과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일방적으로 왜곡, 강조함으로써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건전하고 비판적인 이해를 방해해 왔다. 또한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연구가 대체로 정부의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여 수행되어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 1) 이 문장은 전통적인 인식론에 따라 관찰주체와 외부세계인 관찰대상이 마치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추상명사로 지칭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찰주체와 관찰대상의 관계, 곧 개념과 현실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인 측면보다 상호 의존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많다. 가령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간의 관계를 묘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랑의 개념이 다름에 따라 개념이 지칭하고자 하는 현실 자체가 전적으로 달리 구성된다. 정치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 '권위', '평화',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개념(언어)과 현실(세계)의 상호 의존성(침투성?)이 사회현상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현실의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방법론상 자연과학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관해서는 Hanna F. Pitkin, *Wittgenstein and Justice*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Ch. V 참조.

따라서 적대의식과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채색된 기존의 많은 북한연구가 의도적으로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 확대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 왜곡함으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방해해 왔다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냉전적 대립으로 인해 각 진영의 타진영에 대한 연구가 이데올로기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보편적 문제의 한국적 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남북한의 경우에는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확대재생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론상의 보편적 문제와 남한에서의 북한연구에 특유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은 “북한 연구방법론”이라는 제하에서 최근 남한학계에서 적절한 북한 연구방법론의 모색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음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70년대에 발표된 안병영의 「북한연구의 방법론」과 기존의 방법론에 반발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인 송두율, 강정구, 이종석이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제기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²⁾ 송두율을 비롯한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연구에 주로 쓰이던 기존의 접근법들인 전체주의이론, 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수렴이론 등이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곧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치나 척도에 따라 분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사회를 ‘안’으로부터, 곧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내재

2) 안병영, 「북한연구의 방법론」, 안병영, 「현대공산주의연구」(서울: 한길사, 1982), 349-98면. 또한 이 논문에서 필자가 집중적으로 분석, 비판하고 있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1988년 12월), 104-116면; 강정구, 「연구방법론」, 강정구편, 「북한의 사회」(서울: 을유문화사, 1990), 11-37면; 이종석, 「북한연구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1990년 가을), 75-98면.

이 네 논문들과 앞으로 자주 인용되는 논문들의 경우, 그 논문들이 인용되는 맥락을 분명히 하고 본문 또는 주의 괄호에 --때로 저자와 출간연도를 첨가하면서--면수를 명기하는 것으로 주에 대신한다.

적' 접근법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비판하는 기존의 북한 연구방법론은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분석하기 때문에 통칭하여 '외재적' 접근법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³⁾ 따라서 안병영이 자신의 논문에서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는 북한연구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들은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비판하는 이른바 '외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내재적 접근법은 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진보적인 소장 북한연구자들간에 광범하고 급속하게 파급된 것으로 보인다.⁴⁾ 그 결과 남한학계에서 북한연구의 동향은 크게 기존 학자들이 취하는 외재적 접근법과 신진 소장학자들이 택하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양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취하는 기본적 입장은 내재적 접근법이 종래 남한 사회와 학계에 만연되어 있던 반북의식 및 반공의식을 청산, 극복하고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를 그 체제가 추구하는 이념과 논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점에서 북한체제의 적절한 이해에 기여한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송두율, 강정구, 이종석이 제기한 북한연구에 있어 내재적 접근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양 접근법을 적절히 병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비판의

3) 강정구는 명시적으로 내재적 접근법에 대비하여 "외재적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26).

4) 이 세 학자의 논문이나 저작 이외에도 다음의 책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연세대 대학원 북한현대사 연구회편, 『북한현대사 I』(서울: 공동체, 1989); 한국정치연구회지음 『북한정치론』(서울: 백산서당, 1990); 김남식의,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서울: 현장문학사, 1989); 그리고 외국학자의 책으로 번역된 엘렌 브룬-제크 허쉬저, 김해성옮김, 『사회주의 북한』(서울: 지평, 1988).

주대상으로 삼고 있는 외재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안병영의 논문을 간략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안병영의 「북한연구의 방법론」

70년대 이전까지 남한의 북한연구자들은 북한연구를 둘러싼 방법론상의 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서구에서 수입한 일정한 모델이나 접근법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반공의식과 결합시켜 적용하면서 북한체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북한 연구방법론에 관해 주목할만한 논문들은 70년대 이후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70년대에 나온 방법론에 관한 논문 중 가장 값진 성과는 안병영이 1977년에 발표한 「북한연구의 방법론」이다.⁵⁾ 안병영은 이 논문에서 당시까지 남한에서 수행된 북한연구에 대한 자성적인 검토와 더불어 공산국가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분단이후 남한에서의 북한 연구현황 및 연구방법론을 개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안병영은 이 논문에서 비교 공산주의연구를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하면서 각 접근법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장점과 단점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접근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론적 접근법
2. 전체주의적 접근법
3. 복합조직 접근법

5) 이 논문은 원래 『통일정책』(1977년 5월)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전의 주에서 밝힌 대로 『현대 공산주의 연구』, 349-98면에 재수록된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4.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
5. 집단갈등 접근법
6. 엘리트 접근법
7. 자유화 접근법
8. 체계론적 접근법과 기능분석
9. 통일·통합과정과 연관된 발상으로서 수렴이론과 기능주의 통합이론⁶⁾

안병영의 이러한 시도는 종래의 북한연구가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분석,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 역사적 변화과정을 단순히 기술하는 데 만족함으로 인해 지니고 있던 연구방법의 비과학성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안병영의 논문이 북한연구의 과학화를 위하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던 주요 비교공산주의이론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남한 학계에 소개한 의의는 높이 평가할만 하다. 안병영은 이러한 접근법들을 소개한 후에 북한에 관한 기존연구의 경향과 현황을 분석하고 해방이후 남한사회에서 수행된 북한연구가 가지고 있는 외재적 및 내재적 제약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특히 남한에서 수행된 북한연구 경향의 변화를 남북관계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시키면서 검토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안병영의 글은 방법론에 대한 검토 이외에도 해방이후 남한의 '북한학사'를 개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안병영의 논문에 있어 크게 아쉽게 생각되는 점은 그가 제시한 접근법들이 모두 사회주의체제의 고유한 특성을 전체적으로 조명·조망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안병영이 북한연구를 위해 소개한 비교공산주의분야의 접근법들은 본래부터 공산주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창안된 접근법이 아니라, 원래

6)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위의 글, 357-79, 389-96면을 참조할 것.

서구의 자본주의-다원주의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접근법을 다소 가공, 수정하여 공산주의체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이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안병영의 논문은 서구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 다소의 가공, 수정을 통해서 공산주의체제에 그대로 적용되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독자적인 이론개발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 좀더 비판적인 검토나 논의가 있었다면 더욱 훌륭한 논문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⁸⁾

III. '내재적 접근법'의 대두

안병영의 논문이 출판된 다음, 80년대 후반 남한에서 고조된 민주화의 열기 및 '북한 바로알기운동'과 때를 같이 하여 나온 송두율(1988), 강정구(1990) 및 이종석(1990)의 북한 연구방법론에 관한 글들은 안병영이 제시한 접근법들--외재적 접근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적인 접근

-
- 7) 물론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원래 히틀러 독일의 나찌즘과 이태리의 파시즘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을 다소 가공하여 소련 공산주의에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의 이러한 언급에 예외를 구성한다. 그렇지만 전체주의적 접근법 역시 지향점,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정권의 탄생배경에 있어서 각각 상이한 나찌즘(및 파시즘)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정권을 정치적인 형태상의 유사성에 착목하여 동일시하고 전자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을 후자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필자의 지적은 여전히 타당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 8) 물론 필자는 여기서 (나중에 설명할 것처럼)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래 서구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을 공산주의체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여 공산주의체제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의 어떠한 측면이 경시되거나 과장되는지 또는 그러한 접근법들이 지닌 철학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자기점검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결국 어떠한 접근법이든 현실을 '망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어떠한 이론이나 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편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이론의 한계와 다른 한편 여러 이론들간의 상대적 우열을 항상 비판적으로 음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연구방법론 분야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⁹⁾ 특히 재독(在獨) 한인학자인 송두율이 1988년에 『사회와 사상』에 기고한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문은 비록 상당히 개괄적이고 논리구성의 치밀성도 다소 미흡하지만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효시를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송두율은 이 논문의 서두에서 “북한사회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사회주의사회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이를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¹⁰⁾ 그는 특히 서구와 남한에서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체제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온 기존의 ‘전체주의이론’과 ‘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수렴이론’ 또는 ‘체제비교론적 상대주의’의 결합을 통렬하게 비판한다(1988: 105-07). 송두율에 따르면 전체주의이론이나 수렴이론은 양자공히 “사회주의를 ‘박’으로부터, 즉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척도로 분석해” 내려는 본질적인 결합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제안한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분석·비판”하는 방법론으로서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러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비판”할 것을 주장하는 접근법이라는 것이다(1988: 107). 그리고 송교수는 자신과 독일의 이론가들인 루츠(P.C.Ludsz)나 본 바이메(K.V. Beyme) 등이 이러한 연구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예시한다(107-08). 송교수는 이러한 내재적 분석방법이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성과 특수성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9) 하지만 이종석도 시인하다시피 내재적 접근법은 남한에서 북한연구의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인 김남식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방법이기도 하다(88).

10) 송두율, 앞의 글, 104-05, 108면. 인용문에서 < >로 묶어 강조한 사람은 필자임. 앞으로 이러한 예에 따라 인용문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겠다.

분석"할 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를 '박'에서 들여다보는 선험주의적 태도와는 달리 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사회주의의 독자성은 물론 그 발전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1988: 107-08).¹¹⁾

뒤이어 강정구와 이종석이 각각 1990년에 송두율이 제안한 내재적 접근법을 발전, 심화시킨 차원에서 북한 연구방법론을 제안했다. 강정구는 자신의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정지작업(整地作業)의 일환으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형성을 "조선사회의 내적 역사동력에 의한 결과"라는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사회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원, 곧 사회주의국가들의 공통된 정치경제적 특성, 북한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인 '텔로스(telos)', 북한사회의 역사적 경험(특히 한국전쟁과 핵공격의 위협) 및 북한사회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강정구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정권의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소련점령의 결과로만 인식하려는 학계의 지배적인 태도에 반발하여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을 '내재적', '주체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북한을 소련의 속국이나 위성국가 또는 괴뢰로 보려는 학문적 시각이나 태도를 배척한다. 또한 강정구는 북한사회주의를 북한에만 유일하고 특유한 김일성식의 (일탈형) 사회주의로 몰아부치는 시각에도 반대하여 북한사회주의의 보편성, 즉 다른 사회주의국가와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북한체제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일제치하에서의 빨치산 투쟁경험, 남북분단, 한국전쟁,

11) 송두율은 다른 논문에서 사회주의권의 위기와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주체적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이론과 실천을 전개해 나가는가를 '스스로'가 이야기하도록 하는 내재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하고 있다(송두율, 『현대와 사상』 (서울: 한길사, 1990), 127면).

(핵공격을 포함한) 미국과 남한으로부터의 공격 위협--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11-23).

그리고 나서 강정구는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방법론으로서 '내재적 접근법', '총체적 접근법', '역사추상형 비교방법론', '다양한 비교방법의 활용', '역사적 접근법', '현재적 역사주의(presentism)에 매몰된 역사해석과 역사 재구성의 극복'을 제시하고 있다(23-33). 강정구 논문의 강점은 이러한 각각의 방법론을 서술하고 난 후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를 명쾌하게 예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의 제시와 해석은 기존의 주류 북한학이 견지한 통념적인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radical) 반론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의 논문은 기존의 진보적인 북한연구가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취해 왔던 입장을 정교하게 다듬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가 높이 평가된다.

여기서 강정구는 이 논문의 주된 관심대상인 내재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입각하여 북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내재적 접근법(internal approach)을 중시해야 한다"(23). 즉 북한사회를 지도하는 이념인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내재적 논리에 입각하여 북한사회를 인식,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정구는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과거 반세기 동안 내면화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기준과 논리[의] 지렛대를 준거틀로 설정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북한 사회를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태도가 지니는 결함을, 적절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득력있게 지적하고 있다(24-26).

이종석 역시 『역사비평』(1990년, 가을)에 기고한 「북한연구방법론, 비판과 대안」에서 '과학적 북한연구를 위해 무너뜨려야 할 장벽들'과 '기존의 북한연구방법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관련학자들에 의해서 주

도된 남한에서의 북한연구에 관한 문제점과 기존의 연구방법인 '전체주의적 접근', '역사문화론적 접근법', '행태주의적 접근방법', '평면적 비교방식', '문헌중심적 접근방법' 및 '주체사관에 입각한 서술'이 지닌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¹²⁾ 이종석은 대안적 연구방법으로서 '내재적 비판적 접근', '비교사회주의적 접근과 남북관계론적 시각', '역사상황적 인식과 역사적 접근'을 제시한다.

그는 '내재적 비판적 접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사회를 분석할 때 핵심적인 것은 북한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낸 현실의 다양한 사회작동원리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 이념이 북한사회 현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현실정합성 여부의 문제)를 관찰해야 하는 것이다. 즉, 1) 내재적 작동논리(이념)의 해명과, 2) 논리의 현실정합성에 대한 비판적 규명이 이 접근방법의 핵심이다 (87-88).

이어서 이종석은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의 단초가 송두율에 의해서 남한에 소개되었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치열한 과학정신과 다양한 실증자료의 활용"을 통해 '비판성'을 보강하면 북한 연구의 주류적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88-89). 또한 이종석은 자신이 내재적 '비판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비판적'이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용어상의 차별을 둔 이유에 관해서 "송두율은 이 접근법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내재적 접근'이라고 표현했으나, 필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사회의 이념과 작동논리를 일방적으로 서

12) 이 중 '주체사관에 입각한 서술'은 남한의 이른바 '관변학자'들이 채택하는 접근법은 아니며,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서술 방식이자 주체사상에 경도된 남한의 일부 운동권이 취하는 입장이다(86-87).

술하는 흐름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재적 비판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라고 설명한다(98). 하지만 이종석의 궁극적인 입장은 "특정한 하나의 접근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92). 그리고나서 이종석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 연구의 대상과 영역을 나름대로 설정,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송두율, 강정구, 이종석이 북한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해 온 대표적인 연구자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내재적 접근론자들 역시 사회주의국가들간의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병영이 제안한 서구의 비교공산주의 연구방법론들이 광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서구의 비교공산주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접근법들은,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차별성을 강조하든 자유화 가능성 또는 수렴가능성의 차원에서 공통성을 추적하든, 사회주의체제를 '밖'으로부터 이론화하고자 하는 데 반해,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제안하는 비교사회주의 연구방법은 여전히 그 시각에 있어서 사회주의체제를 '안'으로부터 분석하는 내재적 접근법의 연장에 불과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령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를 비교 연구하든 북한과 동구의 루마니아의 사회주의를 비교 연구하든,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기본적인 시각과 관심은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적 이념이 각 국가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를 유형화하여 고찰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각 국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그 차이점을 개별 국가들이 안고 있는 모순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차별성, 경제발전수준의 상이함, 공산혁명과정의 특수성 등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¹³⁾

13)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절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송두율, 앞의 글(1988), 107-09, 111면; 강정구, 앞의 글, 30-31면; 이종석, 앞의 글, 89-90면.

마지막으로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학자인 이온죽이 북한사회의 연구방법론으로 제시한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보고 이해하는 의미의 세계를 준거틀로 삼아 그 사회의 성격을 파악, 해석해 보고자 하는,” 그리고 “대상에 대한 판단(가치판단을 포함)을 일단 정지하고 대상을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메타이론으로서의 현상학적 접근법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¹⁴⁾ 이온죽에 따르면 현상학적 접근법의 특성은 “관찰대상의 입장에서 현상의 뜻을 해석하려는 자세”로서, “이때 관찰자는 일단 자신의 가치, 선입관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킨다”는 것이다(21). 그러나 북한사회를 “그 사회 자체로 보고, 그 사회의 입장에서 보려는 자세를 취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그 사회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명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우리의 체제와 경제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잠재력과 자아실현에 더 인간적이고 우수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온죽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22).

이러한 이온죽의 현상학적 접근방법이 앞서 설명한 내재적 접근법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입장에 서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온죽이 말하는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보고 이해하는 의미의 세계를 준거틀로 삼는” 방법과 송두을 등이 말하는 북한사회를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이념과 목표에 비추어 설명한다는 입장은, (엘리트를 포함한)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보고 이해하는 준거틀로서의 의미의 세계가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에 기초하는 한, 동일한 입장으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즉 내재적 접근법과 현상학적 접근법은 양자 모두 북한사회를 외부의 ‘관찰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부의 ‘행위자’의 측면에서, 행위자의 이념, 가치, 동기,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온죽의 현상학적 접근법 역시, 내

14) 이온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88), 21-22면.

제적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그 기본 취지는 북한사회를 '밖'으로부터 설명하는, 곧 외부적 가치판단과 선입관을 도입하여 북한사회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외재적 접근법의 결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내재적 접근론자들에 대한 비판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주의의 이념 및 그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사회주의의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외재적 접근법이 간과 내지 왜곡하기 쉬운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을 사용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인식, 비판하는 것이 종종 현실을 왜곡하거나 일면적으로 드러내는 데 불과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사회주의사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한편으로 외재적 접근법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의 가치나 기준만을 도입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주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편협하게 이해함으로써 양 접근법의 대립을 사실상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양 접근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양 접근법은, 적절히 이해하면, 반드시 이데올로기적 시각의 차이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고심한 나머지 이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송두율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체제를 거의 무

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논리전개를 하기도 한다. 세제,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고 이에 관해 침묵하거나, 가볍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역사필연적인 산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내재적 접근법의 비판적 기능은 소홀히 되고만다. 이러한 세 가지 단점은 내재적 접근법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결함이라기보다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또한 이러한 결함은 내재적 접근법에 관한 논리구성이 다소 허술한 송두율의 주장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내재적 접근법은, 특히 그 비판적 기능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시피한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논리로는, 최근 시장경제의 도입과 정치적 다원주의로 치닫는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거의 설명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이하 이러한 논점을 좀더 자세히 부연해 보기로 하자.

(1) 외재적 접근법 및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편협한 이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송두율은 기존의 전체주의이론과 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수렴이론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방법으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하지만 송두율의 주장은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을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지나치게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송두율은 우선 외재적 접근법을 너무나 편협하게 이해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그의 외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의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전체주의이론과 수렴이론은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분석, 비

15) 외재적 접근론자들 역시 일정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성 역시 필연적일 필요는 없다.

관한다(107). 외재적 접근법 일반은 '실험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사회주의 사회의 독자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온당한 방법이 못된다(송두울, 107-08). 나아가 전체주의이론과 수렴이론은 사회주의의 독자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척도로 사회주의를 분석, 비판한다. 특히 전체주의이론은 '민주주의' (=시민적 자본주의)를 절대적인 가치체계로 설정해 놓고 사회주의를 이에 대립되는 절대악으로 양분하는 단순논리 위에 서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송두울, 105, 107; 이종석, 80).

이에 대한 필자의 반론은 세 개의 논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의 '밖'으로부터, 곧 그 사회에 내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척도로 하지 않고 관찰자 나름의 기준과 시각을 정립하여 분석하는 외재적 접근법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지만, 연구주제나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첫째 논점과 연관된 것으로, 사회주의사회를 밖으로부터, 특히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적 가치나 기준에 따라 분석하더라도 그 가치나 기준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적인 한계를 인식하는 한, 그 접근법은 연구주제나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송두울은 외재적 접근법 중 논리구조 및 현실정합성에서 가장 취약한 전체주의이론을 집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외재적 접근법 전체를 송두리째 기각해야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전체주의이론과 수렴이론보다 사회주의사회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외재적 접근법들이 안병영이 제시한 접근법들 중에 있으며 비교공산주의 연구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논의해 보자.

첫째, 사회주의사회는 물론이고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관찰자의 시각에서 분석, 비판하는 외재적 접근법이 일정한 한계를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접근법이든 현실을 망라적으로 해석,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인 주어진 사회의 지배적 이념 또는 가치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부수적으로 고려한다면, 연구주제나 연구자의 관심 여하에 따라 외재적 접근법은 더욱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전체주의이론과 수렴이론을 제외한 서구의 비교공산주의분야의 많은 연구가 그러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비교공산주의 분야의 연구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상식적인 '생각의 실험'은 필자의 반론을 어렵지 않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조선사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그 후기에 상공업의 발달을 통해 자본축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과연 그러한 축적이 독자적인 자본주의의 맹아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태도는 분명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는 조선사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재적 접근법임이 분명하지만, 적절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평등이념의 관점--사회주의적이든 자유민주주의적이든--에서 조선사회의 신분제도나 남녀불평등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던 유교이념을 비판할 수 있다. 또한 과거사회의 가치기준인 동양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현대의 물질문명을 비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의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관한 이론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또는 유교이념과 무관한 외재적 접근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한 정치에서

16) 가령 다음과 같은 저서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Jerry F. Hough, The Soviet Union and Social Science The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1977); Richard H. Solomon, Mao's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al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등.

엘리트간의 권력투쟁, 공산국가내의 엘리트간의 권력투쟁, 조선사회에서 양반들간의 권력투쟁을 적절하게 설명해 낼 수 있다.¹⁷⁾

둘째,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가치와 기준을 절대화하지 않는 한--즉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의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적용을 경계하는 한--이러한 척도에 근거하여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적 취약점인 실업이나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히 하는 시민적 자유--예컨대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 및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치적 반대의 자유 등--를 보장하는 정치문화나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데 실패한 것에 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구의 기준이나 가치를 그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 노력을 '근대화' 내지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시도 역시 서구적 기준이나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는 한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¹⁸⁾ 따라서 외재적 접근법을 채용하여, 송두율이 지적하는 대로, 사회주의를 '뉘' 으로부터 들여다보더라도, 관찰자가 자신의 가치나 기준을 절대화하지 않는 한, 즉 자신의 가치나 기준의 상대적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

17) 이러한 사례들은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간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대립 및 보완적 관계를 해명할 필요성을 야기하는데, 이는 나중에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18) 동소평 집권하의 중국공산당이 1978년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시기의 총체적 과업을 '4개 현대화(四個現代化: 농업, 공업, 과학기술 그리고 국방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라고 규정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것처럼, 실상 많은 공산주의국가들의 엘리트들 역시 자신들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관해 이러한 수사를 사용해 왔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뒤늦게 이러한 혁명적인 정책전환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정당화했다는 점을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에 따라서는 행위자의 의도, 가치 및 이념에 따라 현상을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그 방법은 유효하고도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체주의이론이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전자를 절대선, 후자를 절대악으로 규정한 이분법적 발상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사회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오류와 왜곡을 저질렀다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비판에 필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역으로 내재적 접근법만이 사회주의사회를 올바르게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이론적 태도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것처럼, 송두율은 자신의 논문의 모두(冒頭)에서 “북한사회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마치 ‘정당한’ 방법론과 ‘부당한’ 방법론이 있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어서 송두율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외재적 접근법의 대표격(?)인 ‘전체주의적 접근법’과 ‘수렴론적 접근법’의 한계를 비판한 후에 자신이 제안한 ‘내재적 접근법’의 옹호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송두율은 내재적 접근법만이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사회를 올바르게, 곧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경직된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강정구의 태도는, 송두율과 마찬가지로 내재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풍기고 있다. 강정구는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분석, 비판하는 접근법 자체를 전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연구주제에 따라 외재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재적인 접근법을 중시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외재적 접근법(external approach)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력세습, 민주화 등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적 논리로는 객관적인 설명이나 비판을 기대

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외재적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설득력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26).

위의 인용문은 연구주제에 따라 외재적 접근법이 더 유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설득력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구절을 통해 볼 때, 동일한 주제에 관해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병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⁹⁾ 필자도 이 입장에 동조한다. 따라서 강정구의 외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의 주 논지는 관찰자가 북한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적용하는 외부적인 가치나 기준, 특히 자신이 살아 오면서 습득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기준과 논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 적용한 다음, 북한사회를 비판하는 경박한 태도를 경계하는 데 있다(24, 26):

이미 우리들의 사고 속에는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가치관인 개인주의, 자유 경쟁, 사유재산의 신성화, 적자 생존 등을 불문율로 받아들이는 편견 또는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 있고 또 이런 이데올로기가 개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24).

세제, 송두율은 자신도 인정하다시피 이미 서구에서도 ‘한물 간’ 전체주의이론과 수렴이론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외재적 접근법을 송두리째(?) 논박하고 있다. 이미 안병영이 논의한 외재적 접근법을 취하는 많은 비교공산주의 연구가들에 의해서도 전체주의이론과 수렴이론은 광범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안병영이 제안한 비교공산주의 연구에서 자주 사

19) 기실 강정구가 내재적 접근법 외에 제시하고 있는 ‘총체적 접근법’, ‘역사 추상형 비교 방법론’, ‘역사적 접근법’ 등은 관찰자의 시각을 취하는 외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용되는 다양한 접근법들 중 상당수는 송두율의 분류에 따르면 외재적 접근법이지만--가령 역사문화론적 접근법, 엘리트 접근법, 복합조직 접근법 및 집단갈등 접근법을 예로 들 수 있겠다--자본주의적 잣대나 시민적 민주주의의 척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공산주의국가들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²⁰⁾ 따라서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분석하는 접근법이 예컨대 전체주의이론처럼 반드시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적 기준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송두율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구의 문헌에 익숙한 송두율로서는 이러한 접근법들에 상당히 친숙하거나 친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체주의적 접근법이나 수렴이론의 결합을 비판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분석해내는 외재적 접근법들은 모두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적 척도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오해를 심어 주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외재적 접근법들이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결론적으로 송교수가 외재적 접근법을 편협하게 규정한 것은 자신의 내재적 접근법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사학적 차원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학문적으로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송두율, 강정구, 이종석은 외재적 접근법을 주로 전체주의이론, 수렴이론 등으로 편협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재적 접근법 역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즉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적 척도와 가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분석, 비판하는 외재적 접근법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또는 정의적 요소(definitional features)를 외면하고,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한 후, 사회주의사회를 '안'으로부터, 곧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따라

20) 이에 반해 전체주의이론과 마찬가지로 안병영이 논의한 근대화 접근법, 자유화 접근법, 체제론적 접근법 등은 다분히 자본주의적 잣대나 시민적 민주주의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 비판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주의사회를 '밖'으로부터 보는 외재적 접근법이 반드시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의 가치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듯이,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관찰하는 접근법이 반드시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를 통해서만 볼 필요는 없다. 비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사회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념과 목표를 중시하는 태도는 온당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규정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신문, 방송 등 공영매체를 통해 북한사회를 들여다 볼 경우, 북한사회의 공식적 측면을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물질만능주의와 과소비를 부추기는 상업광고가 자본주의 사회현실의 모든 측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과장적이고 선별적으로 드러내듯이, 북한의 신문, 방송 등의 공식적인 보도채널 역시 현실을 과장적이고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데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현상과 사건을 구성하는 행위자-구성원들의 행위가 '반드시' 그리고 '전일적으로'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 북한사회에도 마키아벨리적인 권력게임이 있고, 계층성별에 따른 상당한 불평등과 고위층의 부패가 존재하며,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현실주의적 행위와 범죄가 있고, 전통적인 유교식의 가족관계와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사회주의 이념과 교육 이외에도 권력에 대한 욕망, 자기보존 본능에서 비롯된 이기심과 개인주의, 유교적인 전통문화 등이 북한사회 구성원의 세계관과 시각을 구성하고, 그 사회의 습속, 관행, 풍속 등을 형성하며, 역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위자의 의식에 내면화된다고 할 수 있다.²¹⁾ 이처럼 권력에 대한 욕망, 본능적인 이기심, 전통문화적 세

21) 따라서 반공의식에 사로잡힌 연구자가 북한의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사회주의 이념이 어떻게 철저히 파괴하였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송두율식의 내재적 접

제관 등이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를 형성한다면, 북한사회의 일정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키아벨리적 정치이론, 적자생존의 이론, 역사문화론적 접근법 등을 적용하는 연구는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북한사회를 분석,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북한사회를 '안'으로부터 보는 내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주제 여하에 따라서 비사회주의적인 내재적 접근법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송두울 등은 사회주의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내재적 접근법으로서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의 적용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원의 동기는 사회주의 지향성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 구성원의 내면적인 심리, 곧 의도, 동기, 목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주의사회가 사회주의이념에 의해서 전일적으로 지배된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관찰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역동성 내지 변화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해 버리고 만다.²²⁾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또는 정의적(定義的)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분석, 비판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법의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송두울, 1988: 107). 사회주의체제 ‘본연(本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론자가 사회주의 이

근법을 남용할 수 있는 반면, 이데올로기 중립적인 인류학자가 사회주의이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면면히 지속되고 있는가를 역사문화론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밝힐 수도 있는 것이다.

22)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사회를 전일적으로 사회주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는 내재적 접근법 역시, 전체주의적 접근법이 공산주의체제를 단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상정한 것처럼, 정태적(靜態的)인 사회관에 빠질 수 있다.

념을 통해 사회를 조명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와
 대비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연의 모습이지, 예컨대 전통사회 또는 봉건사회
 와 비교할 때 드러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전통사회 또는 봉건사회와 대비될 때 드러나는 사회주의 본연의 모습은
 오히려 자본주의국가와 공유하고 있는 산업사회적 속성 또는 근대사회적
 속성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나 양자 공히 서구
 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념의 소산이고 산업, 물질문명의 산물임을 부
 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체제 공히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인
 류문명의 진보를 신봉하며 인간의 합리성과 완성가능성(perfectibility)을
 신뢰한다. 즉 양 체제 공히 근대사회로서, 농업에 대한 공업의 우위, 대량
 생산과 소비, 도시화, 대중화, 관료화, 과학과 기술의 중심적 역할 등 근대
 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강변하는 자
 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또는 사회주의사회의 독자성 또는 고유성--
 란,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에서 신교와 구교의 차이 또는 개인승용차
 와 대형버스의 차이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당대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이 차이를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교와 구교의
 차이는 예컨대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에 비교하면 사소한 것이고, 내연기관
 을 사용하는 개인 승용차와 대형버스의 차이는 우마차와 자동차의 차이에
 비교하면 하잘것 없는 것이다. 따라서 '냉전구조의 포로(捕虜)'적인 시
 각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가 대단한 것 같지만,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사회와 봉건사회(농업사회)의 차별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연구동기와 연구주체에 따라서 자본주
 의와 사회주의의 차별성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산업사회 또는 근대사회로서 양자의 공통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하는
 접근법 역시 적절한 접근법이다.²³⁾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의 고유성과 독자
 성을 강조하고 이는 오직 사회주의이념을 통해서만 조명할 수 있다는 주

장은 기껏해야 부분적인 설득력을 가진, 역사적으로 근시안적인 접근법에 불과하며, 외재적인 접근법은 물론 사회주의이념 이외에 사회주의사회의 다른 내재적 요소를 증시하는 내재적 접근법에 의해서도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포착,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논리의 일방성

기존의 전체주의적 접근법등 외재적 접근법을 취하는 남한의 북한연구자들이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해서 비방하거나 아니면 자본주의 및 시민민주주의적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북한체제를 비판함으로써 반공반북의식을 확대재생산해 온 데 반발하여,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심하는 성향이 있다. 남한학계에서 80년대 사회과학의 진보화 추세와 더불어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이러한 학문적 노력이 역대 보수정권들의 주도하에 반공반북의식으로 채색되어 온 기존 북한연구의 편향적 시각과 북한현실에 관한 왜곡된 해석을 질타, 교정하고, 자신들의 이른바 진보적인 해석을 젊은 지식대중에게 광범하게 확산시킴으로써 북한체제를 좀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공간의 확대와 정치적 풍토의 조성에 일정한 기여를 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경향에 반발하여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데 몰두하다 보니, 심한 경우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인상마저 준다. 이러한 성향은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일면적 또는 과장된 해석, 그리고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 기피 또는 침묵으로 나타난다.²⁴⁾

23)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사회,'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이론' 또는 최근의 '정보사회론'은 이러한 이론적 전체에 입각해 있다.

24) 물론 이러한 학문적 성향이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분석, 비판하는 내재적 접근법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한학계에서의 북한 연구관

이 절에서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때 흔히 저지르는 현실 해석상의 오류나 논리 전개상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송두율은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데 몰두하여 심지어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한편, 강정구는 남한의 외재적 접근론자들이 왜곡되게 설명한 북한체제의 현실을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교정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송두율은 '북한 경제체제의 특이성'을 논하면서 내재적 접근법에 입각하여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송두율은 북한의 사회주의건설과정을 '주체적 발전전략'으로 평가하면서 그 긍정적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소련이나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농업과 경공업에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웠고, 이는 "두 사회주의 대국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동시에 분단 속에서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재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사회주의국가가 농업위기에 처해 있는데, 북한 농업은 여전히 "집단적인 생산·분배단위('작업반' 재산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농업생산을 유지하고 있어 후진국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협동화 전략과 관련"하여 일종의 성공사례로서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북한의 사례는 "농업생산의 사회화 내지 집단화가 반드시 농민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증(反證)"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1988: 112-13).

둘째, 송두율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고리인 전통적 행정단위인 군(郡)

행은 '외재적 접근법 = 북한체제비판, 내재적 접근법 = 북한체제옹호'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다.

을 강화,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수"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극복한 북한의 성공적인 지역발전 전략 역시 오늘날 "'과잉도시화' 문제에 고민하는 제3세계 국가의 지역발전계획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한다. 세째, 송두율은 북한이 인구와 국토의 크기가 작고 자원이 빈약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립경제 건설정책을 추진하여 자급자족적 경제운용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즉 북한의 사례는 사회주의적 자립경제 건설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가 크고 인구와 자원 등이 풍부한 나라에서만 자급자족적(*autarky*) 경제운용이 가능하다"라는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한다(1988: 113).

북한경제에 대한 송두율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송두율은 북한의 농업생산력과 도농간의 격차 해결 등의 업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적의 경우에도 그러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북한체제나 인민이 지불해야 했던 댓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비용'의 측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두율은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문의 검토를 통해 좀더 예시해 보자.

가령 북한의 최근 농업상황에 관해서는 농업생산력이 크게 정체되고 있으며 주곡인 쌀의 자급자족마저도 어려워, 동남아와 남한에서 쌀을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식량의 배급량도 감축되었다는 일부의 관찰이 있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두율은 북한의 농업생산에 대한 정확한 수치

25) 가령 오래고 다비도프,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대외정책」,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499면; 원간조선 편집부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서울: 조선일보사, 1991), 80, 92면. 심지어 북한체제는 최근 몇년간 사회주의권의 변혁으로 인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약화 등 내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한국전쟁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전반적

제시도 없이 70년대까지의 경험에 근거하여 막연하게 북한농업의 성공을 주장하고 있다. 송두율은 또한 북한이 전통적인 행정단위인 군을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많은 제3세계국가의 고질적인 병폐인 극심한 도농격차에 연유한 '과도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나, 실제로 북한의 도농격차의 크기를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하여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식의 도농격차의 해소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평면적 비교만으로 족하지 않고, 북한이 과연 여타 사회주의국가나 제3세계국가만큼 거주이전의 자유를 충분히 허용하고 있는가라는 등 비용의 측면을 고려한 연후라야 한다. 만약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면서 과도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를 위해 일반인민들이 지불한 대가--자유 의 제약--를 비교, 형량한 후에 비로소 북한이 이룩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이른바 북한이 추구하는 자급자족적 경제운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열악한 조건에서 성취한 사회주의혁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급자족적 경제운용이 바람직하고 또 불가피했다고 해도 이러한 자급자족적인 경제운용을 위해 북한이 지불한 경제적 대가 역시 깊이 감안해야 할 것이다.²⁷⁾ 오늘날 북한의 경제성장의 둔화나 침체를 설명하는 데

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북한경제의 위기와 실상에 관해서는 정대규,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동아연구』 제23집 (1991년 12월), 45-75면 참조.

26) 월남한 북한인들과의 대담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에도 농촌총각은 결혼하기 어려우며, 농촌여자 또한 도시남자와 결혼하기 어렵다고 한다. 즉 북한의 경우도 젊은이들의 농촌기피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은 북한에도 도농격차가 상당하며, 따라서 북한당국은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간조선 편집부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10-111, 120면 참조.

27) 서진영은 송두율과 달리 북한경제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폐쇄적이지도 자립적이지도 못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름대로의 근거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서진영, 『북한권력변동 및 사회변화대비계획 연구』(서울: 통일원, 1990), 86-87면 참조.

는 자력갱생원칙에 따른 노동력 중심의 대중동원에 의존하는 대내지향적인 공업화로 인해 선진기술과 자본의 도입이 지체된 것이 주된 이유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다.²⁸⁾ 잃은 좋은 세계경제와의 밀접한 교류나 교역이 없이는 갈수록 생존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자급자족적 경제운용체제를 고수한 것은 사회주의이념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 반면, 동시에 경제의 낙후와 고립을 초래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면할 수 없다. 또한 자급자족적 경제운용체제의 고수가 초기에는 필요하고도 바람직했는지 모르나, 공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내포적 성장에 필요한 선진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한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는 시대착오적인 경제운용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²⁹⁾

정리하건대, 농업생산력의 향상, 도농간 격차의 극복 그리고 자급자족적 경제운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가 또는 바람직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북한체제가 표방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이 아니라 외재적인 기준의 경합적인 도입에 의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두율은 70년대 서구 사회주의자들의 북한에 대한 평가를 '현실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리고 '비판적인 성찰없이' 그저 '한국어'로 반복

28) 위의 글, 87면; 연하청, 「사회주의 경제계획」, 최명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165-66면.

29) 연하청, 앞의 글, 146면. 이는 물론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선택한 남한식 경제발전이 북한의 자급자족적 경제운영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거나, 또한 그러한 공업화를 위해 남한체제가 지불한 대가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한의 경제발전전략을 비판하는 지식인이나 학자 역시 남한의 경제발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남한경제가 현재까지 지불한 '대가'와 앞으로 질머지게 될 '부담'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모든 평가가 상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체제의 일정한 업적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업적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를 위하여 그 체제가 지불한 댓가 역시 고려한 후--물론 이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즉 손익계산서의 손실과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과장적으로 부각하는 인상을 준다.

송두율에 비해 강정구가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북한사회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종래 전체주의적 접근법이나 기타 외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북한체제를 설명하거나 비판한 것이 북한현실의 해석에 어떠한 왜곡을 가하고 있었는가를 설득력있게 지적함으로써 내재적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내재적 접근법에 입각하여 강정구는 북한체제가 기계공업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 이유를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텔로스(목적)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여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라고 규정한 사회주의 헌법 제25조에 따라 북한당국은 “여러 공업 분야 중에서도 기계 공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농촌의 이앙기, 트랙터 등을 조기 생산하기 시작하여 농민들을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힘써 왔다”는 것이다(19).³⁰⁾

또한 대학에 진학하기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2년 이상 노동자로 직장생활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북한의 제도도 “효율성이나 신속성 등 자본주의의 준거기준에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근절시켜야 하는 사회주의 가치관”에 따라 ‘전인민의 노동계급화’를 추구하는 북한 사회주의입장에서는 “당연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강정구는 해석한다(19-20) 북한의 ‘금요노동’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³¹⁾

30)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일찍부터 농촌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및 화학화에 노력을 기울여서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송두율이 주장한 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소련, 중국의 경우보다 낮았으며, 60년대 말까지 북한 농촌의 생활수준은 남한의 농촌생활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관한 논의로는 강정인, 『북한사회의 평등성』, 『동아연구』 제24집 (1992년 6월), 119-20면과 거기에 인용된 문헌을 참조할 것.

31)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는 조광동, 『더디가도 사람생각 하지요』 (서울: 지리

또한 강정구는 남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본주의 내지 개인주의적인 기준과 논리를 준거물로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북한사회를 재단함으로써 범하기 쉬운 결함을 적절한 사례를 예시하면서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 강정구는 남한 백화점의 북한상품전시회에서 북한산 도자기를 싼 포장에 대해 안내원이 포장용 종이의 품질, 색깔, 디자인, 포장방법 등 여러 가지를 들추어 내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의 1960년대 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발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내재적 입장에서 적절하고도 설득력있게 비판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 특히 북한의 경제는 교환가치가 아닌 욕구 충족이라는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으로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도 없거니와 선정적인 디자인, 화려한 색깔, 필요 이상의 고급품 남용 등은 사회주의적 내적 논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철저히 배격된다. 단지 도자기의 파손을 방지하는 본래의 목적에 걸맞은 포장이면 만족한 것이다(24).³²⁾

강정구의 북한현실에 대한 이러한 내재적 해석은 자본주의적 또는 개인주의적 잣대에 따라 북한사회를 설명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극명하고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강정구의 이러한 해석에 충분한 수긍을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체제가--현존 국제질서하에서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을 지속적으로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이고자 한다. 즉 북한은 사용가치의 증진과 직접적인 상관

산, 1991), 90-93, 98-100면을 참조할 것.

- 32) 강정구는 이와 비슷한 논리에서 남북한의 1인당 GNP를 산출, 비교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북한 여행자들이 종종 지적하는 북한인민을 주로 상대하는 도매상이나 소매상 등 가게에서의 상품진열 방식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도 설득력있게 재비판하고 있다(25-26).

이 없는 경우에도 제품의 포장이나 디자인을 세계시장에서 요구되거나 통용되는 수준에 맞추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의 심각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주의국가들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서방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북한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러시아, 동구 및 중국을 비롯한 구사회주의국가들이 단일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급속하게 편입됨에 따라, 북한은 과거와 같이 사회주의 우방국가의 특혜적인 원조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생산력의 발전과 인민의 물질생활의 향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하여 고립을 지속할 수 없고,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편입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남한과 더불어 유엔에 가입하고,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피하고, 남한 기업들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일련의 의미심장한 태도변화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북한측의 대응노력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은 소유관계의 변화나 시장기제의 활성화와 같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주요한 조건은 물론 아니지만, 당연히 따라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강정구의 해석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북한과 같이 경제침체와 자본 및 자원의 빈곤을 겪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는, 고립과 빈곤의 사회주의를 감수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요구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³³⁾

33)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의 세계체제이론의 주된 논지에 의존하고 있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개혁을 세계체제이론에 비추어 해석한 논문으로는 서재진, 「세계체제이론과 소련사회의 변동」,

(3)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회피 또는 결여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자신들의 접근법을 통해 북한사회를 분석<비판>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입각하여 북한사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비판적인 분석은 자신들의 논문의 주된 주장의 틀러리에 불과하다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즉 사회주의 이념과 목적에 비추어 김일성 1인의 장기집권, 1인의 절대적 권력, 권력의 부자세습, 계층간의 불평등, 경제발전의 침체를 초래한 경제정책, 당과 정부내의 엘리트의 부정부패 및 관료제의 폐해,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소홀한 점 등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논리에 따른 북한사회의 '정확한 이해'를 강조하는 나머지 독자로 하여금 때로는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문건을 읽는 느낌에 빠지게 할 정도로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연구에 있어 내재적 접근법은 그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사회과학에서 객관적 인식의 필요조건인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포기하는 인상마저도 준다. 이를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송두율은 내재적 접근법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러한 이념에 비추어," 곧 '안'으로부터 "검토, <비판>"하는 입장이며, "양적 수치로 표현된 사회주의 사회가 스스로 발표한 통계수치나 집계와 같은 일차적 자료는 우선 <비판>적으로 재해석되고 재평가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1988: 107, 109-110).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재적 접근법의 효용성을 예시하기 위해 송두율이 북한체제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그러한 비판적 분석이나 재해석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가 받은 인상이다. 다만 전체주의적 접근은 "'개인우상'이나 '일당독재'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주로 분석"한다면서

(1988: 108), 그 접근법의 관심영역 자체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송두율에게 있어서 북한의 '개인우상'이나 '일당독재'는 전체주의적 접근이 창작해낸 '가공의 현실'인가 아니면 '현실'이되 내재적 접근법으로는 설명해 낼 수 없는 현실인가? 내재적 접근법의 입장에서 적어도 '개인우상'이나 '일당독재'로 지칭되는 현저한 현실에 관해 나름대로의 설명을 제시해야 하지 않았을까? 송두율의 논문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내재적 접근법은 그 비판적 기능이 소홀히 될 때, '무비판적으로' 북한체제와 북한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두둔하기 위한 접근법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한편 송두율은 북한 연구자료를 얻기 힘든 이유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자료공개가 '반공' 선전에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우려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자료나 정보공개를 기피하거나 통제하는 데도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라고 언명하고 있다(1988: 110). 이 구절에서 "필요이상으로"라는 표현은 북한측의 태도가 이해는 되지만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자료나 정보공개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서 "반공선전에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우려"를 들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북한측의 공식적인 설명과 일치할 것이다. 만약 남한당국이 국회나 일반국민에게 '30대 재벌에 대한 대출규모', '금년도 경제성장수치나 쌀의 생산량', '금년도 무역수지의 적자규모',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 또는 '미국으로부터 무기구입의 규모와 액수' 등을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북한의 대남비방의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한다면 사려깊은 시민들 중에서 이를 액면 그대로 곧이 들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 상당수의 의식있는 시민들은 비공개에 이유가 경제실정(經濟失政), 정경유착,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안보를 위해서라고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당국이 자료나 정보공개를 기피하는 이유

를 공식적인 설명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외에도 정권안보의 차원이나 북한 엘리트들의 실정(失政), 무능력, 부정부패 등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라고, 곧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권력의 생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외재적 기준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견 당연하게도 보이는 이러한 해석을 송두율은 북한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³⁴⁾

물론 송두율이 내재적 접근법에 입각하여 북한경제체제의 특이성을 논하면서 주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설명한 것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강요당해온 남한의 많은 대중들에게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새롭게 인식시킴으로써 일정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두율이 논문의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점을 부각시키되 부정적인 점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그러한 태도는 논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공·반북의식에 입각한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이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항, 의존하여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는, '비판적' 성찰없는 내재적 접근법 역시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송두율의 논문은 후자의 입장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해 있다. 이론적인 타당성에 앞서서 현실 사회주의국가의 변혁은 '무비판적인' 내재적 접근법의 파산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이론적 도그마는 '이른 봄의 잔설(殘雪)'처럼 아직도 산등성이에서 서성이고 있다.

강정구도 앞서 인용한 것처럼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입각하여 북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한다(23). 하지만 강정구 역시 북한의 공식적 입장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단 이러한 공식적 입장에 대한 비판

34) 1993년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이례적으로 92년에 북한이 달성한 경제적 성과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 침묵이 북한의 경제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공여지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해 송두율은 어떤 해석을 제시할 지 궁금하다.

적 태도를 삼가고 있다:

또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 진군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꼭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으며 공산주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는 내적 자기논리에 의해서 역사진군을 하고 있다. 즉 북한 사회주의 자체의 이념, 형성조건, 역사조건, 지향점, 역사 운동 법칙에 따라서 북한 역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을, 즉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해하려면 북한사회주의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18).

위 인용문에 이어 강정구는 사회주의체제의 정의적 요소(defining features)로 생산수단의 공유,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사회주의적 분배 그리고 계획경제 네 가지를, 곧 정치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구가 프롤레타리아독재나 공산당에 의한 일당지배를 사회주의의 정의적 요소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다.³⁵⁾

물론 그렇다고 강정구가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전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는 내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재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앞서 인용한 바 있는--구절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성향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재적인 접근법을 중시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외재적 접근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력세습, 민주화 등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적

35) 뒤에 논의할 서진영의 논문이나 스테판 화이트 등은 공산당에 의한 일당지배체제를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주된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테판 화이트외저, 서규선·박재주 옮김, 『공산주의 정치체제』 (서울: 인간사랑, 1989), 13-14면 참조.

논리로는 객관적인 설명이나 비판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외재적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설득력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26).

위 인용문에서 놀라운 점은 강정구가 정작 권력세습, 민주화 등 북한체제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정작 비판이 요구될 때, “북한의 내적 논리로는 객관적인 설명이나 비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외재적 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는 사실이다.³⁶⁾ 그렇다면 강정구는 내재적 접근법의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던 애초의 태도와 모순되게,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사회를 비판하는 데 쓰이는 접근법이고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데 쓰이는 접근법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수용한다는 말인가? 권력세습, 민주화 등의 문제는 북한이 “사회주의사회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입각하여” 비판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북한체제는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설명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데, 주체사상의 내적 논리가 완벽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그 논리에 따라서는 권력세습, 민주화 등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힘들기 때문에 외재적 접근법을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인가?

하지만 그 어떠한 이유도 필자에게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주의의 목적과 이념에 입각해서 또는, 한편으로 인간의 자주성, 창의성, 의식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인간관 및 인

36) 강정구의 이러한 태도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강정구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징인 정의적 요소를 제시할 때, 그 정치적 측면의 보편적 특징인 공산당에 의한 일당지배에 관해서 침묵을 지킨 점, 그리고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시정하기 위해 예시한 긍정적으로 재해석한 사실들--곧 대학진학전 2년간의 직장생활 요구, 포장이나 디자인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는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 등--이 모두 북한사회의 사회경제적 현상이지 정치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정구는 북한체제를 포함한 사회주의체제의 사회경제적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정치적 측면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비판을 자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민대중의 역사주체성을 강조하는 사회역사원리와, 다른 한편 수령론 및 권력의 부자세습의 상호모순성을 지적함으로써, 즉 내재적 접근법을 견지하면서도 이념 내재적인 논리모순이나 이념과 현실의 부정합성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송두율과 강정구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학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주장은 이미 외재적 접근론자들에 의해서 무수히 제기되어 진부할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 깊숙히 만연되어 있는 반공의식을 강화하거나 조장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삼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를 심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처럼, 내재적 접근론자들 역시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 그들이 적절히 해석, 평가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종석은 주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진보적인 북한연구자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언명을 회피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종석은 송두율이 제시한 내재적 접근법을 '내재적 비판적 접근'으로 명명하면서 "내재적 작동논리(이념)"의 "현실정합성에 대한 비판적 규명"의 중요성을 다른 두 연구자들보다 강조하고 있다(88, 77). 하지만 현실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정치권력이 북한 혐오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속에서 자칫 비판적인 접근은 정권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진보적인 북한 인식이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정권이 반북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지적은 존중되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오늘날 북한연구는 내재적 비판의 공간확보를 통한 연구의 심화와

는 중요한 도정에서 지체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북한의 논리는 있으나 북한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77-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석은 비판적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제 북한 바로알기운동의 수준은 북한의 내재적 논리의 일상적 강조의 수준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가 본다. 반복혐오증을 확대재생산하고자 하는 세력을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재적 비판적 관점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북한의 긍정, 부정의 양면을 모두 보고 대중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북한 바로알기운동은 훨씬 더 건강하게 조국통일의 길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78)?³⁷⁾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 북한연구의 비판성 확보를 강조하는 이종석의 입장은 건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자도 그의 결론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언명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역시 이 논문이나 북한체제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삼가고 있다.³⁸⁾

국내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비판을 자제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러코뮤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서구의 공산당, 일본 공산당 및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

37) 이종석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취한 소장 북한 연구자들의 연구에 비판적 안목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87).

38) 이종석, 「김정일연구 I」, 『역사비평』 (1991년, 가을), 266-96면 참조.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내재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김남식도 자신의 논문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있다. 김남식, 「북한 연구현황과 주체사상」, 역사문제연구소편, 『한국 근현대연구입문』 (서울: 역사비평사, 1988), 201-223면; 「동구의 충격, '주체사상' 변할 것인가」, 『역사비평』 (1990년, 가을), 18-29면;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3:1 (통일원, 1991년 봄), 9-39면 참조.

권의 개혁이전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비민주성, 일당지배체제, 관료제의 경직성과 부패, '신계급'의 발생 등 공산주의의 교의나 현실의 많은 부분에 관해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면서도 가차없는 비판을 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 역시 공산국가일반의 문제점--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일반인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 독립된 사법부의 부재가 인권보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 당과 국가 및 여타 관료들이 실제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가지 물질적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³⁹⁾--은 물론, 북한에 특히 심각한 현상들--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투표에서 노동당후보가 일반인민의 거의 100%에 가까운 지지를 확보하는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개인숭배현상, 권력의 부자상속 등--을 준엄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비판을 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쳐 버린다.

이 점에서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입장은 스테판 화이트와 그 공저자들이 분류한 '공식적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과 '비판적 마르크스주의' 중에서 공식적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에 근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공식적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은 개혁이전의 공산정권 자체가 지지하던 접근법으로서 1986년 소련 공산당이 채택한 강령도 이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접근법은 "자본가계급의 타도가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며, 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는 세계관에 입각에 있다.⁴⁰⁾ 이에 반해 서구의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취하고 있는 접근법은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에 해당한다. 화이트 등에 따르면 비판적 이론가들은 "공산주의 국가의 지배집단은 자본주의 사

39) 공산국가의 결합에 대한 일반적 비판으로는 화이트의, 앞의 책, 34-37면 참조.

40) 위의 책, 32-33면.

회의 지배계급이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착취를 하고" 있으며, "국가는 프롤레타리아를 정치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관료집단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론화한다.⁴¹⁾ 따라서 이들은 공산주의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물론 강정구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듯이 항일 무장 투쟁이나 조선의 해방이 거의 전적으로 김일성 개인에게 기인되는 류의 설명도 지양되어야" 하며 "개인 숭배나 세습제 등도 다분히 유일한 항일 유격대라는 역사의 왜곡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과 일정하게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다(17). 하지만 "단순히 개인 숭배나 권력 독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체사상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격상시켰다는 남한내 관변학자의" 해석을 강정구는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하면서 주체사상이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이론과 방법, 실천이 통합된 삶의 방식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의 구체적인 삶과 직결되었다"라고 옹호함으로써 북한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23). 다른 한편, 이종석 역시 기존의 북한 연구방법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마지막 항목에서 주체사관에 의한 역사기술이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인민대중을 상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서술에서는 수령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서술 방식이며 남한의 이른바 '주사파'가 취하는 '주체사관에 입각한 서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86-87). 문제는 김일성의 절대권력, 김일성 중심의 역사왜곡과 개인숭배, 권력의 부자세습, 권력의 정당화 도구로서의 주체사상의 위상 등 북한 정치체제의 비민주적 측면이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데 과연 얼마나 중요한 현상인가라는 질문이다. 외제적 접근론자들은

41) 위의 책, 36면.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아가 북한사회의 거의 모든 현상을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하는 데 반해,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다른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정치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련된 해석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이라고 반박하거나, 또는 단순히 지엽적으로 언급하고 지나쳐 버린다. 그러나 필자는 외재적 접근론자들의 비판이 많은 경우 '지나친' 점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치체제의 비민주성은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주의 이념 자체를 무색케(overshadow) 할 만큼 의미심장한(significant)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4) 최근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변혁방향을 설명함에 있어서 내재적 접근법의 무력성

1985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래 본격적으로 태동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혁은 동서독 통일, 루마니아에서의 차우체스코정권의 붕괴, 소련방의 해체, 러시아연방에서 급진개혁정권인 옐친정권의 등장, 유고슬라비아내전, 체코와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분리 등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붕괴'라는 말이 적절할 정도로 급진적이고 돌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변혁은--비록 쿠바와 북한의 경우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대체로 시장경제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변혁의 궁극적인 결과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변혁의 방향, 속도, 포괄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 특히 비판성이 결여된 남한의 내재적 접근법은 최근의 이와 같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변혁과정을 설명하는 데 무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비판은 1988년에 송두율이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문을 기고했을 때보다 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제기되는 것

이므로 역사의 진행과정을 좀더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는 점에서 후견지명(後見之明)의 이득(the benefit of hindsight)을 누리고 있다. 다만 송두울은 90년에 출판된 책에 수록된 글에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관련하여 냉전적인 반공보수적 이론과 개혁파의 사회주의이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서 사회주의권의 변혁과정을 여전히 이른바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론' 42)으로 보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현존 사회주의를 전체주의적 시각에서 보았던 점에서는 냉전적인, 반공보수적인 이론이나 스탈린주의적 유산을 청산하고 '인간적 모습을 띤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파'의 사회주의이론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전자는 개혁을 결국 사회주의의 '자본주의화' 내지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의 '흡수'로 이해하고 있는 데 대해서 후자는 '더 많은 사회주의'를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혀 다른 전제위에서 있다.(1990: 126)

이종석 역시 전체주의적 접근법의 무용성을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관련하여 지적하면서 송두울과 비슷한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사회주의권 개혁의 역동성이 바로 이[전체주의] 접근법의 무용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 개혁의 와중에서 기존의 체제를 종종 전체적 체제라고 개혁파들이 스스로 비판하는 등 최근 사회주의권의 흐름은 전체주의 이론을 부각시켜 주는 것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이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를 형태적 수준(역사의 한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에서가 아니

42) 사회주의권의 변혁운동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간략하게 정리한 글로는 서진영, 앞의 글, 13-21면을 참조할 것. 여기서 서진영은 사회주의권의 변혁운동에 관한 시각을 '사회주의 몰락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론', '사회주의 강화론', 그리고 '발전론적 시각에서 본 사회주의 개혁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라 본질적 수준에서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권 개혁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근의 사회주의권 개혁과 이 이론과는 화해할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주의이론은 사회주의 사회의 역동성을 부정하고 목적론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의 현상적인 형태의 부분적 공통성을 본질적인 공통성으로 일반화함으로써 거의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81).

하지만 92년말의 시점에서 본 사회주의권의 변혁과정은 이러한 내재적 접근법에 의해서는, 곧 '더 많은 사회주의'론이나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론'에 따라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듯하다.

서진영은 사회주의국가들이 각각 역사적·정치적·사회경제적·문화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다음 네가지의 체제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 (1) 마르크스-레닌주의, 또는 그것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을 공식적인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
- (2) 당의 영도권이 이념적, 정치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 있는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
- (3)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유화, 집단화를 통하여 사적 경제와 시장 경제 영역을 억제하고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 (4) 진영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7-8)

그리고나서 서진영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변혁운동 또는 개혁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의미있

는 변화'로 설정하여 파악하고 있다:

- (1)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계급적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경우,
- (2) 공산당의 영도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가 있는 경우,
- (3) 사적 경제와 시장경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영역을 상당 부문 축소하는 경우,
- (4) 진영론적 사고를 포기하고 국제적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대외개방을 시도하는 경우”(9)

서진영이 제시한 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주의권의 변혁은 세계 공산주의혁명과 체제의 지도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거나 약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며, 다원주의적인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주의권의 변혁과정은 적어도 현재의 시각에서 보건대, 사회주의체제의 건설과 공산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적(텔로스)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회주의의 위기가 정말 ‘사회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면 오늘날 소련과 동구에서 진행되는 ‘개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어야만 하는가”(송두울, 1990: 126)라고 스스로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송두울을 비롯한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를 애당초 고르바초프가 언명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회주의’를 위한 사회주의의 ‘일보 후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사회주의의 목표 자체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는 인류에게 달성불가능한 목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여전히 고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내재적 접근법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러

다가 조만간 북한이--많은 관측자들이 예상하는 대로--적극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추구할 경우, (특히 비판성을 결여한) 내재적 접근법에 근거해 과연 어떠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송두율이 1988년에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을 기고했을 때는, 현재까지 가시화된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아직 예상되지 않았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후 돌발적이고 급속하게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 과정과 붕괴후 사회주의국가들이 겪고 있는 변혁의 규모와 방향--특히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예측한 기존의 사회과학이론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나마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개혁의 원인, 과정 및 방향을 설명하는 데는 외재적 접근법에 속하는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 또는 산업사회이론에 입각한 수렴론이나 자유화 접근법에 입각한 설명이 결과적으로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설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⁴³⁾

43) 이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의 변혁이나 북한체제의 변동전망과 관련된 논문들이 취하고 있는 접근법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그 논지의 현실정합성여부를 이 글에서 다 논의할 수 없다. 대개 여러 접근법들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근대화론 또는 산업사회론의 시각에서 북한체제의 개혁전망을 논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유길재, 「김정일 권력승계와 80년대 북한 당국가체제의 변화고찰」(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 1990), 여기에는 계급이론을 가미하여 설명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서재진의 「북한사회계급구조의 재편과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575-617면을 들 수 있다. 또 서재진은 앞서 인용한 바 있는 논문, 「세계체제이론과 소련사회의 변동」에서 '외재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체제이론에 입각해서 사회주의권의 개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설명은 논리구성의 치밀성이 다소 미흡하고 세계체제이론이 그 성격상 사회주의권의 변혁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안고 있지만, 상당히 신선하고 설득력이 있다.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서진영도 자신의 논문에서 사회주의국가 변혁운동의 원인을 사회주의 이념을 중시하는 내재적 접근법에 의거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의 위기', '정치체제의 비민주성', '장기적 경제침체', '사회적 다원화' 및 '국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득력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개별 사회주의국가마다 상이한 변혁의 유형을 '자생적인 혁명운동의 경험과 체제개혁운동의 전통유무', '경제발전의 수준과 경제위기의 심각도', '국내적 개방정도와 사회적 다원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정태적이고 공산주의국가의 내적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 주체 및 과정을 성공적으로 예측하거나 설명하지 못했지만,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주의이념을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전체주의 정권'이 몰락하고 결국 정치적 다원화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인가'라는 변혁의 방향과 결과의 예측에 있어서는 내재적 접근법보다 더 일관되고 성공적인 설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전체주의적 접근론자들은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대실패'로 규정하는데, 이는 전체주의적 접근법의 핵심적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다.⁴⁴⁾ 이 점에서 전체주의적 접근법이 '더 많은 사회주의를 위한 개혁'으로 해석하는 내재적 접근법보다--추론과정의 타당성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면--결과의 예측에 있어서 더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앞의 논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재적 접근법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남한 학계에 내재적 접근법이 수용되지 못하다가, 학문적 분위기도 자유로워지고 이제 막 내재적 접근법이 학문적인 입지를 확장해 가려는 순간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아무런 설명력도 가지지 못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아이러니이다. 이론의 논리적 구조의 취약성 때문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가 이론의 설명력을 박탈해 가버린 셈이다.

V. 맺 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북한사회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대립되는 두 입장인 의

44) 서진영에 따르면 브렌진스키를 비롯한 전체주의적 접근론자들은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대실패' 또는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보고 있다(17-18).

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내재적 접근법이 그 '진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이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사회의 연구방법론으로서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대립되는 방법론적 전제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필자의 기본적 입장은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중 어느 한 접근법이 '옳고' 다른 접근법은 '그르다'라는 방법론적 일원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기실 복잡미묘하고 모순된 사회현상을 하나의 이론틀이나 접근법으로 다 설명해낼 수 없으며, 설명하고자 하는 현실의 주어진 영역의 특징, 거기에 적용되는 담화의 특성,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목적 및 가치지향에 따라서 상이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양한 접근법을 중첩적으로 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명백해진 것처럼, 방법론상 내재적 접근법은 체제 '내'의 행위자의 시각을, 외재적 접근법은 체제 '밖'의 관찰자의 시각을 취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위자의 시각과 관찰자의 시각은 때로 일치하고, 때로는 모순되며, 또 때로는 상이하지만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철학자와 사회이론가들은 단일의 일관된 현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는 안 되며, 사회현상을 행위자와 관찰자의 입장에서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복잡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현상의 이론화에 있어서 자연과학자보다 더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친다. 따라서 북한연구 방법론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추상적으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중 어느 접근법이 더욱 적실성이 있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양자의 관계를 다음의 여섯가지 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

는 데 적합하고, 외재적 접근법은 그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보는 남한에 있어서 북한연구의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주어진 현상에 대해 언제나 상호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며,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상호 합의하여 긍정적·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관찰대상인 현실영역의 특성에 따라 내재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 외재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 영역이 있다. 예컨대 북한의 토지개혁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데는 외재적 접근법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넷째, 어떤 현상의 경우에는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병존적으로 적용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에 걸쳐 일어난 북한의 이른바 '종파싸움'을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건설노선을 둘러싼 투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마키아벨리식의 권력투쟁으로 해석하여 양 해석을 병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주체사상의 기능에 관해서도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을 병존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주어진 현상에 관한 양 해석이 상호 모순되어 병존적으로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현실의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재적 접근법을 '현상'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으로, 외재적 접근법을 '구조'를 중시하는 구조주의적 접근법으로 비유하여 양자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여섯 가지의 논점을 좀더 치밀하게 다듬어 전개하는 작업은 또 하나의 논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 남한학계에서의 '잘못된' 북한연구 관행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앞서 예시(豫示)한 것처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복잡하고

도 미묘한 상호 대립과 보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학계의 북한연구 풍토는 이분법적인 대립의 경향만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기존의 잘 알려진 '보수적'인 학자들은 주로 외재적 접근법을 취하고 북한에 관해 비판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은 주로 내재적 접근법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⁴⁵⁾ 전자의 북한연구는 역대 남한정권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의 기초를 대변하거나 이에 봉사하는 성향이 강한 데 반하여, 후자의 북한연구는 남한정권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에 비판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남한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대체로 통일에 적절하다고 보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가 공산주의체제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 후자는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작성되고 사실상 분단고착·현상유지 지향적이며, (적어도 남한식의) 자본주의체제가 바람직한 체제인가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와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중 일부는 사회주의가 우리 민족의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⁴⁶⁾

이러한 상반된 성향 때문에 전자는 자신들의 경험과 반공의식에 근거하

45) 이러한 이분법적 기술이 개별 학자들의 진정한 학문적 입장을 과장, 왜곡할 가능성이 있지만, 논의의 필요상 선명한 대조를 위하여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진행하고자 한다. 예컨대 김갑철, 김창순, 도홍렬, 유석렬, 서대숙 등의 입장은 전자에 편향되고 있는 데 반해, 강정구, 김남식, 송두율, 이종석, 정대화 등의 입장은 후자에 경도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재미정치학자 8인이 쓴 기행문들 중 상당수는 외재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공간적·문화적 거리감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고 남북한 등거리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양성철·박한식편저 『북한기행』(서울: 한울, 1986) 참조). 남한학자들 중에서도 예컨대 양호민과 전인영은 기본적으로 전자의 입장에서, 강정구와 이종석은 대체로 후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91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과 더불어 남한의 진보적인 운동이 위축됨에 따라,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의 무조건적인 북한 동조태도 역시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46) 물론 최근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현실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념의 매력의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여 북한에 대해 거의 맹목적인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후자는 남한의 집권세력들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거의 맹목적인 친북한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맹목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자가 북한사회에 관한 자신들의 비판 속에서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은폐, 과소평가 또는 무시하며,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은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하여, 후자는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고 부각시키는 데 골몰하면서, 북한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상황의 필요(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합리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성학자들의 북한연구자세는 북한에 대한 첨예한 비판의식은 유지하고 있으나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에 대한 사랑은 결핍되어 있는 데 반해, 진보적 소장학자들의 자세는 한 민족으로서 북한에 대한 사랑은 있되 건전한 비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사랑이 결여된 사실 자체가 학문적으로는 문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대상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경우에도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의 결여가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연구주제와 이론적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강한 선입관을 심어줌으로써 대상의 객관적인 이해를 방해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북한을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민족통일의 완수'라는 과업이며, 여기서 북한은 단순히 '통일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대등한 '통일의 주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랑=상호존중'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그런데 상호존중을 결여한 태도는 대북 및 통일정책에 있어서 분단유지-반통일적 태도를 견지하거나 아니면 멸공통일이나 흡수통일과 같이 상대방의 존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타협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장은 통일에 있어서 북한의 '주체성'을 부인함으로써 통일의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설사 이러한 정책에 의해 통일을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통일한국은 심각한 통일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이나 일부 운동권 세력은 남한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고 그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연구에 임한다. 그들 중 일부는 북한체제를 남한체제개혁과 남북통일의 잠재적 대안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연구에 임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기성학자들의 반복적이고 분단지향적인 북한연구성향에 반발한 나머지 그들의 학문적 태도는 통일과 북한체제에 대한 강한 열망과 사랑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사랑은 있되, 그 사랑에 비판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북한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논문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들은 거의 맹목적인 반발을 보이며, 궁지에 몰리면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러한 비판은 다 과장, 왜곡된 것이다" 아니면 "그러한 비판적인 태도는 그 의도가 여하튼--대부분의 경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연구자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 기인하겠지만--결과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킴으로써 남한의 보수집권세력을 비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이들이 "남한의 기존 북한연구는 반공의식에 의해서 거의 왜곡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기존의 연구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북한 문헌이나 원전을 그 특수성과 한계를 무시한 채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남한정부와 기존학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와 북한원전에 대한 무비판적인 맹종과 수용의 태도는 '지식인'의 비판적인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곧 지식인으로서의 파산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으로 일반대중에게 오인되거나 정부당국에게 쉽게 그러한 오해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바로알기운동'이나 통일에 대한 그들의 순수한 열망을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탄압하여도 대중여론은 수동적으로 방관하고 묵종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학의 진정한 학문적 발전과 나아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찬양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정권의 '반공놀음'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도 인정하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 진실의 한 단면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거나 비판을 자제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적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시인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 일반 대중에게도 설득력이 있게 들릴 것이다.

만약 진정한 사랑이 건전한 비판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는 단순히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에 반발한 나머지 시계추처럼 반대편 극단으로 내달는 것이다. 이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인과의 사슬에 묶인 물화(物化)된 사고이며, 부모에게 반발하여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반항처럼 아직 성숙하고 자율적인 인간의 사고가 아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건전한 비판을 수반한다라는 명제를 뒤집어 생각하면, 오늘날 남한의 진보적 또는 좌파성향의 지식인들 역시 분단의식이 내면화되어 그들이 비판하는 남한체제를, 북한체제보다 훨씬 편애하는 분단유지적인 우(愚)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남한체제에 대한 비판이 민족의 반쪽인 남한사회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면 또 하나의 반쪽인 북한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왜 사랑의 채찍을 가하지 않는가?

술제니친이나 사하로프 등 소련의 반체제적 지식인들이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를 맹목적으로 사랑해서 소련의 반체제인사가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소련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의 독재와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 반발한 것

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의 반쪽인 북한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비판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 서는 일일 것이다. 프로이트 역시 유대인으로서 유대민족을 사랑했겠지만, 그의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한 결과 모세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는 그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밝혔다. 유럽의 곳곳에서 반유대주의가 팽배했던 때, 구약에서 유대민족의 구원자이며 통치자로 묘사된 모세가 유대민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필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실망스럽고, 또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결론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학문적 양심을 민족적 이익(?)보다 우선시켰던 것이다.⁴⁷⁾ 학자에게, 진리에 대한 사랑은 그 밖의 모든 사랑보다 우월하다. 이 점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가급적 빨리 조성되어야 '진정한' 통일도 앞당겨진다고 생각한다.

47) 물론 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나' 학문적 진리가 민족적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정치가에게는 학문적 진리보다는 국가적 이익이 우선시되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